

KIA 양현종·나지완 “비우니까 채워지네”



양현종 8이닝 2실점 호투...7승 달성

나지완 결승포...23호 개인 기록 타이

‘비우면서 채우겠다’는 KIA의 에이스 양현종과 4번 타자 나지완이다.

KIA 양현종은 지난 20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7승에 성공했다. 노계임과 우천 중단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두 경기의 부진을 털어냈다.

양현종은 7월30일 SK전에서 9이닝 1실점의 완투승을 거두면서 뒤늦게 6승 고지를 밟았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 5.1이닝 8실점(7자책), 넥센전 5.2이닝 실점으로 부진했다. 특히 앞선 넥센전에서는 6-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회 난타를 당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명예회복에 나선 양현종은 지난 17일 kt와의 홈경기에 출격했다. 1회를 삼자범퇴로 연 양현종은 2회 1루수 포구 실책으로 위기를 맞기도했지만 탈삼진 세 개로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그러나 2회말 KIA 공격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노계임이 선언됐다.

비에 무산된 양현종의 설욕전은 20일에 재개됐다. 양현종의 이날 성적은 8이닝 4피안타(1피홈런) 2사자구 6탈삼진 2실점(비자책)이다. 6회 2사에서 포수 이흥구의 송구 실책 이후 문선재에게 투런을 맞은 게 아쉽기는 했지만 이후 2이닝을 더 책임지면서 2-2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그리고 8회말 나지완의 결승 홈런이 타지면서 승리투수가 될 수 있었다.

2014년 16승, 2015년 15승을 거뒀던 양현종은 올 시즌 KBO리그 사상 첫 좌완 3년 연속 15승을 기대했다. 초반 부진과 불운 속에 15승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됐지만 3년 연속 10승 고지의 꿈은 남아있다. 하지만 승보다는 이닝을 목표로 해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양현종의 바람이다.

양현종은 “10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날이 목표다. 이닝을 목표로 하다 보면 승리라는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며 “앞선 두 경기에서 내 볼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다. 안 맞으려 하면서 변화구를 많이 던졌는데 후회가 됐다.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에이스 양현종에게 승리를 안겨준 나지완은 이 홈런으로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썼다. 2009년 23개의 홈런이 자신의 최다 기록. 102경기에서 23개의 홈런을 터트린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30홈런도 가능하다. 하지만 나지완은 홈런 욕심을 비우고 타점에 신경을 쓰면서 4번 타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전력분석팀에서 직구를 자신있게 던지는 투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몸쪽 직구가 와서 파울 홈런을 쳤는데 다음에도 직구 승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화구가 오면 삼진을 당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직구 타이밍에 맞춰 스윙을 했다”고 23호 홈런에 대해 설명한 나지완은 “에이스에게 승리를 안겨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홈런에 신경 쓰기 보다는 타점에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김진우 이번엔 진짜 오는 거야?”

덕아웃 T 특특

▲ 좋을 때 나와라 = 21일 LG와의 경기에 앞서 진행된 타격 훈련. 배팅 게이지에 있던 윤정우가 좌측으로 시원하게 담장을 넘기자 뒤에서 지켜보던 조계현 수석이 “좋을 때 (배팅 게이지에서) 나와라”고 웃었다. 윤정우는 이어 좌중간 담장까지 넘긴 뒤 배팅 게이지에서 나왔다. 이날 윤정우는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좋은 타격감을 보였던 윤정우는 1회 무사 1루에서 첫타석에 들어서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이어 김주찬의 좌중간 홈런으로 홈을 밟으며 득점도 기록했다.

▲ 이겼으니 다행이죠 = 20일 LG전 3-2 승리를 가장 기뻐한 선수는 승리투수 양현종도 결승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도 아니었다. 경기가 끝난 뒤 이날 공수에서 부진했던 포수 이흥구가 가장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2개의 삼진 포함 세 타석에서 출루를 하지 못했던 이흥구는 6회 수비에서는 악송구를 기록하면서 동점 투런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

안함을 표시한 이흥구는 “이겼으니 다행이다”고 양현종의 손을 잡았다.

▲ 진짜로 오면 = 김기태 감독을 들었다 놓은 투수 김진우다. 지난 6월30일 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김진우는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선발 한자리에 김진우를 생각해주었던 김 감독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재활을 해왔던 김진우는 19일 경찰야구단과의 퓨처스 경기에 등판해 실전을 소화했다. 20일에도 자체 훈련에 나 오는 등 복귀 움직임이 나왔다. 기대를 했다가 크게 실망을 했었던 김 감독은 “느긋하게 없는 전력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다. ‘막바지에 와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진짜로 1군에 오려고 하면 보고하려고 했다’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일본 여자골프 1인자들의 우승 행진

박성현, 시즌 6번째 우승컵

KLPGA 보그너 MBN 오픈

막을 자가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1인자 박성현(넵스·사진)의 우승 행진이 예사롭지 않다.

박성현은 21일 경기도 양평 테스타휴 골프장(파72·6752야드)에서 열린 KLPGA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더 줄여 3라운드 합계 17언더파 199타로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여섯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박성현은 신지애의 시즌 최다승 기록(9승) 경신 초입기에 들어갔다.

최근 2개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일방적인 우승을 거둔 박성현은 이번에도 첫날부터 선두에 나서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우승까지 질주했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태 시즌 상금액을 9억 591만원으로 늘린 박성현은 김효주(롯데)가 2014년에 세운 시즌 최다 상금(12억 897만원)에 3억원 차이로 좁혔다. 상금, 다승,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도 더 단단히 다졌다.

이미향(KB금융)에 4타차 리드를 안고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성현은 8번홀에서 다섯번째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



김치 우승에 췌기를 박았다. 11번홀(파3)에서 여섯번째 버디를 수확하자 우승 보다는 KLPGA투어 54승 최스타 기록(193타) 경신 여부가 더 큰 관심사가 됐다. 박성현은 11번홀 버디로 20언더파까지 타수를 낮췄지만 이후 보기 3개를 적어내며 신기록 달성은 다음으로 미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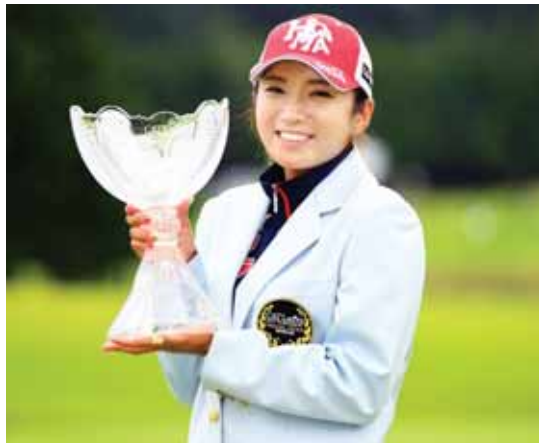
이보미 “생일 자축 선물은 트로피가 제맛”

28번째 생일에 일본골프 시즌 4번째 우승

이보미(28·사진)가 생일에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통산 19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보미는 21일 일본 나가사와의 다이하코네 골프장(파73·6704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CAT 레이디스 최종일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2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10타로 전미정(34), 오에 가오리(일본)와 연장에 나선 이보미는 연장 첫 번째홀에서 1m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메이지립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보미는 시즌 네번째 우승으로 상금왕 2연패에 푸른 신호등을 켜다. 우승 상금 1080만 엔을 보태며 시즌 상금을 1억1092만 엔으로 늘렸다. 이보미는 상금, 다승, 평균타수 등 주요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보미는 이날 28번째 생일을 맞아 기쁨이 더했다. /연합뉴스



이보미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인 통산 20승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 미국, 일본투어에서 20승을 거두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영구 시드권을 받는다. 박세리(39), 전미정, 신지애(28), 박인비(28·KB금융), 안선주(29)가 이 규정에 따라 KLPGA 투어 영구 시드권을 갖고 있다. 한국인 일본투어 최다승(23) 기록 경신을 바라봤던 전미정은 대기록 달성을 다음 대회로 미뤘다. /연합뉴스

강정호, 부상자명단에... “2~4주 결장할 듯”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친 강정호. /연합뉴스

슬라이딩 중 왼쪽 어깨 다쳐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한국인 타자 강정호가 왼쪽 어깨 통증으로 15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올랐다.

피츠버그 구단은 20일(현지시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강정호를 부상자명단에 올린 대신 조시 벨을 로스터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MLB닷컴은 강정호가 2~4주간 결장할 전망이다. 강정호는 전날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8회 헤드 퍼스트로 2루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수비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 후 재활을 거쳐 올해 5월 빅리그로 돌아

온 강정호는 타율 0.243, 홈런 14개, 41타점을 기록했다.

타격 부진에 시달린 강정호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계기로 홈런 3방을 터뜨리며 부활에 시동을 걸던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불운에 직면했다. 좌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6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랐고,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도 왼쪽 팔뚝 수술로 부상자명단에 있다. 현재 빅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는 ‘타격 기계’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 ‘끝판대장’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막내’ 최지민(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3명뿐이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하반기 직원모집
프린트 22~55세, 주방한모 (출퇴근 및 숙박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